

【 P2-11 】

## 유방암 환자의 폐경 전후에 따른 식품섭취와의 관계

김은정\*, 최봉순<sup>1</sup>

계명문화대학 식품영양조리과, 대구가톨릭대학교 식품영양학과<sup>1</sup>

### The Relation of Breast Cancer Woman and food Intake by Menopausal Status.

Eun-Jung Kim\*, Bong-Soon Choi<sup>1</sup>

Dept. of Food, Nutrition & Cookery, Keimyung College\* Dep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sup>1</sup>

유방암 환자의 폐경 전후에 따른 식품섭취와의 관계를 조사하여 유방암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이용하고자 처음으로 유방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100명과 건강한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폐경 상태에 따른 환자 대조군 연구를 실시하였다. 117가지의 식품을 식품섭취 빈도법으로 조사한 후 평상시 일일 식품섭취량과 유방암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해, 대조군의 식품섭취량으로부터 산출한 4분위수를 기준으로 4개의 범주로 나누었다. 연령과 총 에너지섭취량을 보정한 상태에서 가장 적게 섭취하는 군(1/4 분위수 섭취군; 이하 최저 섭취군으로 표기)을 기준으로 나머지 각 범주 즉 2/4 분위수 섭취군, 3/4 분위수 섭취군, 4/4 분위수 섭취군(이하 최다 섭취군으로 표기)에서의 비차비를 구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ackage program을 사용하여 연령 또는 폐경에 따른 효과 조정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폐경 유무에 따라 나누어 층화분석을 실시하였다. 117개의 식품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 폐경전여성에서는 잡곡밥은 최저(-0.00g)섭취군을 기준으로 모든 범주의 비차비가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으며, 만두는 2/4 분위수(0.01-10.4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40(95% 신뢰구간 0.17-0.96)이고, 두부는 2/4 분위수(7.21-23.20g)섭취군의 비차비가 0.41(95% 신뢰구간 0.18-0.90), 3/4 분위수(7.21-23.20g)섭취군의 비차비가 0.14(95% 신뢰구간 0.04-0.51)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 두류음료는 3/4 분위수(8.01-28.0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16(95% 신뢰구간 0.05-0.47)이고, 시금치는 2/4 분위수(6.31-9.8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38(95% 신뢰구간 0.16-0.89), 3/4 분위수(9.81-20.3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21(95% 신뢰구간 0.07-0.64)이고, 당근은 최다(20.31g-) 섭취군의 비차비가 0.22(95% 신뢰구간 0.05-0.92)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피망은 최다(6.31g-) 섭취군의 비차비가 0.16(95% 신뢰구간 0.04-0.65)이고, 아욱도 최다(4.51g-) 섭취군의 비차비가 0.18(95% 신뢰구간 0.03-0.97)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부추는 모든 범주에서 유방암과 유의적인 관련성이 있었다. 케일은 3/4 분위수(0.01-6.3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40(95% 신뢰구간 0.16-0.96)으로 유의성이 있었다. 오이는 최다(20.31g-) 섭취군의 비차비가 0.13(95% 신뢰구간 0.03-0.53)으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고, 느타리버섯은 2/4 분위수(2.81-6.30g) 섭취군의 비차비가 전체 0.33(95% 신뢰구간 0.13-0.86) 이었다. 표고버섯은 최다(7.01g-) 섭취군의 비차비가 0.16(95% 신뢰구간 0.03-0.86)이고, 고등어는 3/4 분위수(6.31-9.8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26(95% 신뢰구간 0.10-0.73)이 있다. 폐경후여성에서는 양송이버섯은 3/4 분위수(2.81-6.3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08(95% 신뢰구간 0.01-0.96)로 치즈는 3/4 분위수(0.01-2.80g) 섭취군의 비차비가 0.23(95% 신뢰구간 0.05-0.96)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었다.